

# Saul Bellow의 小説에 나타난 Symbolic Death

梁 京 柱

## I

Haward M. Harper Jr.는 Saul Bellow의 "Human life is ultimately a mystery."<sup>1)</sup>라는 말을 引用하면서 이 人生의 mystery를 探究하는 것이 Bellow 文學藝術의 目標라고 말한 바 있다.<sup>2)</sup> 사실, Bellow는 그의 첫 作品 *Dangling Man*에서부터 "How should a good man live, and what ought he to do?"<sup>3)</sup>라는 問題를 提起하여 *Herzog*에 이르기 까지 "What does it mean to be a man?"<sup>4)</sup>이라는 問題를 계속 檢討함으로써 現代社會 속의 人間存在의 問題, 즉 現代라는 非人間化된 社會 속에서도 個人的 價値있는 삶의 營爲가 可能하냐 하는 問題를 계속하여 다루어온 作家였다. 그러나 Bellow는 그가 말한 人生의 mystery, 다시 말하면 人間の 삶의 問題를 探究하는 過程에서 끊임없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達着하곤 했으며, 그 結果 그 죽음의 문제를 解決하기 위하여 不斷히 努力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Bellow는 *Dangling Man*에서 부터 죽음의 問題를 안고 있는 protagonist Joseph를 登場시켜서 現代라는 커다란 混亂 속에 처한 一個人的 삶의 意味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人間을 制約하여 人間을 무겁게 내리 누르고 있는 不可思議한 힘으로서의 죽음의 문제를 提起케하고, 계속하여 이 죽음의 問題를 緻密하고 用意周到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으며, 죽음의 문제를 안고 그 超越을 試圖하려 했던 Henderson을 거쳐

---

\* 이 論文은 1981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Saul Bellow, *Recent American Fiction*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63), p.12.

2) Howard M. Harper Jr., *Desperate Faith*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7), p. 63.

3) Saul Bellow, *Dangling Man* (Penguin Books, 1914), p. 32.

4) Saul Bellow, *Herzog*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6), p. 201.

*Herzog*에서는 죽음에 대한 하나의 解決點을 摸索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Bellow의 小說에 보다 깊이 接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可能性을 發見하게 된다. 물론 그러한 可能性은 K. M. Opdahl이 "Bellow shifts from social issues to the ultimate problems of evil and death."<sup>5)</sup>라고 말하여 이미 示唆되고 있듯이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가 現代社會 속의 人間의 存在方式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Bellow가 執拗하게 追求했던 本質의이고도 核心의인 문제중의 하나였다는 點에서이다. 그럼에도 한가지 分明한 點은 Bellow에 대한 研究가 오늘날까지 여러가지 側面에서 進行되어 刮目할만한 業績을 낳고 있음에도 그러한 研究들은 주로 現代社會 속에 처한 人間存在의 문제이자 삶의 問題에 집중되고 있어서 餘他の 문제들, 말하자면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소 枝葉的인 것으로 다루어져 온 것이 事實이란 點이다.

따라서 筆者는 本稿에서 Bellow의 小說에 擡頭되는 이러한 죽음의 問題를 究明하기 위한 努力의 하나로 먼저 *Dangling Man*에서 *Herzog*에 이르기까지 作品에 나타나는 主動人物들의 죽음을 分析·檢討하여 그 特徵的 樣相중의 하나가 "symbolic death"임을 論하고, 둘째로 이 "symbolic death"가 나타나고 있는 두 作品, *Dangling Man*과 *Seize the Day*를 分析하여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밝혀내며, 셋째로 이 "symbolic death"가 바로 "suicide"가 되고 있음을 心理學的, 社會學的의 몇가지 理論을 援用하여 論하려고 한다.

## II

죽음의 問題가 Bellow뿐만 아니라 많은 文學家들, 특히 人間性的의 探究와 人間의 表現

- 5) Keith Michael Opdahl, *The Novels of Saul Bellow*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67), p. 7.
- 6) *Dangling Man*에서 *Herzog*에 이르는 作品만을 本稿에서 檢討의 對象으로 삼은 것은 Bellow가 최근 作品 *To Jerusalem and Back*(1976)에 이르기 까지 내놓은 作군이 龐大하다는데도 그 理由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여러 批評家들이 指摘하고 있듯이 主題나 人物, 文体, image 등 여러 가지 文學的 要素가 發展變化하면서 일차적으로 *Herzog*에 이르러 綜合完成되고 있으며, 죽음의 問題 또한 *Dangling Man*에서 提起되어 *Herzog*에 이르러 解決點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Brigitte Sheer-Schäzler, *Saul Bellow*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1972), p. 92; Tonny Tanner, "The Flight from Monologue," *Saul Bellow Herzog: Text and Criticism*, ed. Irving How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0), p. 447; Irving Malin, *Saul Bellow's Fiction*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9), p. 145; Joseph Epstein, "Saul Bellow: America's Major Novelist," *Dialogue*, 10 no. 3 (1977), p. 56 참조.

즉 인간의 發見을 特質로 삼고 있는 수 많은 小說家들이 즐겨 다루어 온 永續的이고도 普遍的인 文學의 主題이자 素材가 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죽음이란 문제가 그들 作品 속에서 모두 똑 같은 手法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고, 또 同一한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作家들은 죽음을 表現하는 手法이나 表現된 죽음과 作品主題와의 關係등에서 서로 相異하고 多樣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李仁福은 文學作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죽음을 檢討하면서 바로 이 죽음이 表現되는 方法과 그리고 그 表現된 죽음과 作品主題와의 關係에 따라 4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먼저 그것은 죽음이 表現되는 方法, 즉 作家가 죽음을 그의 作品속에서 어떻게 表現하느냐 하는 區分에 의한 것으로 作品內에서 “죽음이란 言表”를 통하여 나타나는 “言表 있는 죽음”과 “죽음이란 表現”을 使用하지 않고 나타나는 “言表 없는 죽음”이며, 다음은 이들 “言表 있는 죽음”이나 “言表 없는 죽음”이 作品의 主題와 어떤 聯關關係를 갖느냐에 따른 것으로 作品內에 나타난 죽음이 作品의 主題를 나타내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重要因子로 남게 되는 “主題의 죽음”과 作品의 主題를 決定하는데 크게 影響을 끼치지 못하는 “素材의 죽음”이 그것이다.<sup>7)</sup>

물론 한 作家가 다루고 있는 죽음의 類型이나 手法上的 相異함이나 그 多樣性을 檢討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基準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方法을 使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豫示한 分類와 基準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Bellow가 죽음을 다루는데 있어서 다른 作家들과 두드러지게 區別되는 特徵的 一面을 把握하기에 充分하다 할 수 있다.

Bellow가 죽음을 다룰 때 생겨나는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무엇 보다도 그가 *Herzog*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간의 죽음과 죽음의 問題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主動人物들의 實際의 죽음은 단 한작품에서도 다루고 있지 아니하다는데 있다. 이러한 特徵은 *Dangling Man*이 Joseph의 軍入營으로 끝나고 있으며, *The Victim*은 Leventhal이 Allbee를 劇場에서 만난 場面에서, 그리고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는 Augie가 Paris에서 Bruges로 旅行하는 場面에서 끝나고 있고, *Seize the Day*는 Wilhelm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靈柩속의 屍體를 바라보며 복받쳐 오르는 感情을 抑制치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場面에서,

7) 李仁福, 「韓國文學에 나타난 죽음 意識의 史的 研移」(서울:悅話堂, 1980), pp. 17-18. 李仁福은 “죽음이란 言表”는 죽음, 죽었다 등 이외에 屍體라든가 葬禮등 죽음이란 단어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모든 言語表現을 가리키고 있다. 동시에 그는 言表없는 迂迴的이고 象徵的인 죽음에 대하여 言及하면서, “가령 카프카의 「變身」은 주인공 그레굴 삼사가 毒蟲으로 변하여 한달간 苦悶하고 있는 모습을 描寫하고 있는데, 이때 人間 삼사로 부터 毒蟲 삼사로 변한 순간을 죽음에의 변형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죽음을 언급하지 않고 죽음을 表現한 좋은 例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言表없는 죽음”의 例를 들고 있다.

*Henderson the Rain King*은 Henderson이 Africa에서 New York로 돌아오는 도중 Newfoundland에 機着한 場面에서, 그리고 *Herzog*는 Herzog가 Chicago에서 딸 Junie를 만나고 Ludeyville의 옛집으로 돌아온 場面에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거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主人公이 단 한사람도 없다는 事實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Bellow의 小說에서는 主動人物들의 “言表 있는 죽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이 分明하다.

둘째 特徵은 K. M. Opdahl과 Max F. Schulz도 指摘하고 있듯이, Bellow는 主動人物들을 作品內에서 죽음과 實際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象徵적으로 直面케 하며, 또 이 죽음과의 衝突의 結果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自覺, 즉 主動人物들의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지게 하여 그 죽음을 心理적으로나 精神적으로 克服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sup>8)</sup>

*The Victim*을 살펴보면 Laventhal은 Allbee의 同伴自殺未遂事件을 통하여 죽음과 直面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ut suddenly he [Leventhal] rushed from bed, dragging the sheets in which his foot had caught. He kicked free and ran into the kitchen. He collided with someone who crouched there, and a cry came out of him. The air was foul and hard to breathe. Gas was pouring from the oven. “I have to kill him now,” he thought as they grappled. He caught the cloth of his coat in his teeth while he swiftly change his grip, clutching at Allbee’s face. He tore away convulsively, but Leventhal crushed him with his weight in the corner.

Allbee’s fist came down heavily on his neck, beside the shoulder. “You want to murder me? Murder?” Leventhal gasped. The sibilance of the purring gas was almost deafening.

“Me, myself!” Allbee whispered despairingly, as if with his last breath. “Me...!”

Then his head shot up, catching Leventhal on the mouth. The pain made him drop his hands, and Allbee pushed him away and flung out of the kitchen. He stumbled after him down a flight of stairs, trying to shout and bruising his naked feet on the metal edges of the treads. He heard Allbee jump and saw him running into the foyer. Seizing a milk bottle from a neighbor’s sill, he threw it. It smashed on the tiles.

He raced back to turn off the gas. He feared an explosion. By the wildly swinging light, he saw a chair placed before the open oven from which Allbee apparently had risen when he ran in.

Leventhal threw open the front-room window and bent out, tears running down his face in the cold air. The long lines of lamps hung down their yellow grains in gray and blue of the street. He saw no one, not a living thing.<sup>9)</sup>

8) Keith M. Opdahl, *The Novels of Saul Bellow*, p. 160; Max F. Schulz, *Racial Sophistication: Studies in Contemporary Jewish-American Novels* (Athens, Ohio: Ohio University Press, 1969), p. 122 참조.

9) Saul Bellow, *The Victim*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Inc., 1947), p. 246.

이 事件을 통하여 昏迷스러운 Leventhal과 Allbee와의 關係는 끝나고 Leventhal은 그의 固着化된 決定論的 生活態도와 被害意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營爲할 수 있는 可能性을 찾게 된다. 물론 이 경우 Allbee의 同伴自殺未遂事件은 Allbee가 "Me Myself!" "Me...!"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Leventhal은 그 사건을 "a kind of suicide pact"<sup>10)</sup>라고 여기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Allbee가 이 作品 속에서 Leventhal의 "alter-ego"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事件은 Leventhal의 自殺未遂事件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ld Leventhal"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拋棄로 나타나고 있다.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의 Augie는 Joseph나 Leventhal과 비교하여 볼 때 Joseph의 죽음에 대한 恐怖나 罪意識, 특히 *Leventhal*의 삶에 대한 決定論的 態度에서 벗어나, 積極的이며, 어느정도 樂天的이고, 生命과 活氣에 차있는 새로운 運命과 삶의 可能性의 探求者로 登場하고 있으나, 그도 역시 生死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意識하며 죽음과의 對決 속에서 죽음의 一步直前까지 이르게 된다. Augie가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遭遇하게 되는 것은 Mexico에서 Thea에게 버림받고 빈털털이가 된 채로 홀로 남아 Thea와 Stella로부터 소식을 기다리는 狀況下에서이다. Augie는 이 狀況을 하나의 죽음이라 생각하고 죽음의 誘惑을 받고 있다.

At one time I felt that if Death came up and tapped me on the shoulder, saying, "Ready?" I'd think it over a minute and then say, "Okay." So in a way died somewhat, and if there was anything I knew by now it was how impossible it is to live without some thing infinitely mighty and great.<sup>11)</sup>

그러나 Augie는 이 죽음의 誘惑에서 屈伏하지 않고 벗어나 生命의 나라 美國 Chicago로 다시 돌아오며 Stella와 結婚함으로써 그의 決意를 보여준다.

Augie가 다시 죽음과의 鬪爭을 벌이며 죽음을 經驗하게 되는 것은 大西洋上에서 「難破된 후 Bateshaw의 救助를 받게 되어 그와 벌이게 되는 一連의 事件을 통해서이다.

I (Augie) turned to give my full attention to the horizon, when suddenly a heavy blow descended on me and knocked me flat. He(Pateshaw) had clubbed me with the oar. He was getting ready to hit me again, with the loom this time, having hit me with the blade before. That Moses, Savior and Messiah! He raised up on his heavy legs. More of a look of a task to be done than lust was on his face. I tried to roll away from this

10) *Ibid.*, p. 249.

11) Saul Bellow,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 (Greenwich, Conn.: Fawcett Publications, Inc., 1967), p. 429.

blow and I yelled, "For Chrissake, don't kill me!"

Then I made a rush for him, and the minute I got my hands on him I felt I'd kill him if I could, that much rage was in me. I wanted to strangle him. He dropped the oar and gripped me round the ribs. The way he grabbed me I couldn't use my arms. I butted and kicked while he put on more pressure, till I couldn't breathe.

He was a maniac.

And a murderer.

Two demented land creatures struggling on the vast water, head to head, putting out all the strength they had. I would certainly have killed him then if I'd been able. But he was the stronger man. He threw his immense weight on me, he was heavy as brass, and I fell over a thwart with my face on the cleats of the bottom.

I made read for the end.

The powers of the universe should take me back as they had sent me forth.

Death!<sup>12)</sup>

이 事件에서 그는 거의 죽음에 이르지만 끊임없는 죽음에 대한 抵抗과 鬪爭으로 劇적으로 살아남아 救出된다. 生命과 活氣에 차있던 Augie는 이 두 사건을 契機로 人間을 무겁게 내려 누르고 威脅하고 있는 自然界와 人間社會의 盲目的이고 非人間的인 커다란 힘, 즉 Augie의 表現을 빌자면 "darkness"<sup>13)</sup> 속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특히 "the man of ideas"인 Bateshaw의 하나인 미친 計劃 즉 하나의 理論에 의하여 이 세계를 把握하고 그 理論에 의하여 人類를 救濟하며 고통으로부터 解放시키려는 그의 計劃이나 Augie 自身の "special destiny, higher independent fate"의 追求까지도 모두가 다 "the creation of a version of reality"가 되고 있으며 또 하나의 虛構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 그를 둘러싸고 있는 自然界와 人間社會의 모든 實像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契機가 되고 있다.

Steers와의 interview에서 Bellow가 "What Henderson is really seeking is a remedy to the anxiety over death"<sup>14)</sup>라고 말하고 있듯이 Henderson이야말로 Bellow가 그러한 人物들 중에서 가장 深刻하게 죽음의 문제를 意識하고 그 문제를 解決하기 위하여 몸부림친 人物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겪게 되는 經驗들은 죽음과의 連續的 衝突이며 죽음으로부터의 逃避이다. 그러나 Henderson은 이러한 逃避過程에서 King Dahfu와 獅子 Atti를 통하여 象徴적으로 죽음을 直示하게 되고, 죽음은 그가 超越할 수도 逃避할 수도 없는 現實임을 깨닫는다.

12) *Ibid.*, pp. 529-30.

13) *Ibid.*, p. 211, 240, 287.

14) Interview with Nina A. Steers, "Successor to Faulkner?" *Shaw*, IV (Sept. 1964), p. 38.

He [Lahfu] took me up to the door and made me look through the grating at Atai the lioness, and in that soft, personal tone peculiar to him which went strangely to the center of subject, he said, 'What a Christian might feel in Saint Sophia's church, which I strikes visited in Turkey as a student, I absolve from lion. When she gives her tail a flex, it against my heart. You[Henderson] ask, what can she do for you? Many things. First she is unavoidable. Test it, and you will find she is unavoidable. And this is what you need, as you are an avoider. Oh, you have accomplished momentous avoidances. But she will change that. She will make consciousness to shine. She will force the present moment upon you. Second, lions are experiencers. But not in haste. They experience with deliberate luxury.... But I cannot expect you to see this at first. She has much to teach you.'

'Teach? you really mean that she might change me.'

'Excellent. precisely. Change. You fled what you were. You did not believe you had to preish. Once more, and a last time, you tried the world. With a hope of alteration. Oh, do not be surprised by such a recognition,' he said, 'seeing how it moved me to discover that my position was understood.'

And so I [Henderson] was the beast. I gave myself to it, and all my sorrow came out in the roaring. My lungs supplied the air but the note came from my soul. The roaring scalded my throat and hurt the corners of my mouth and presently I filled the den like a organ pipe bass. 'This was where my heart had sent me with its clamour. This is where I ender up.<sup>15)</sup>

*Herzog*의 protagonist Herzog는 자신에게 일어난 不幸을 포함하여 人間의 삶과 죽음을 哲學的 命題를 가지고 說明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計劃은 하나의 幼穉함이 밝혀지고, Chicago에서 일어난 自動車交通事故를 겪게 됨으로써 그는 끊임없이 逃避해 왔던 自身の 죽음의 그림자를 밝게 된다.

They [Herzog and Junie] left the parking lot carefully enough, Herzog later thought. He was a circumspect driver. But getting his Falcon into the main stream of traffic he should perhaps have reckoned with the long curve from the north on the cars picked up speed. A little Volkswagen truck was on his tail. He touched the brakes, meaning to slow up and let the other driver pass. But the brakes were all too new and responsive. The Falcon stopped short and the small truck struck it from behind and rammed it into utility pole. June screamed and clutched at his shoulders as he was thrown forward, against the steering wheel. The kid! he thought; but it was not the kid he had to worry about. He knew from her scream that she was not hurt, only frightened. He lay over the wheel, feeling weak, radically weak; his eyes grew dark; he felt that he was losing ground to nausea and numbness.

15) Saul Bellow, *Herzog*, pp. 242-51.

He listened to June's screams but could not turn to her. He notified himself that he was passing out, and he fainted away.

They spread him out on the grass. He heard a locomotive very close—the Illinois Central. And then it seemed somewhat farther off, blundering in the weeds across the Drive. His vision at first was bothered by large blots, but these dwindled presently to iridescent specks. His pants had worked themselves up. He felt a chill in his legs.

“Where's June? Where's my daughter?”

“Come here, Junie.” He leaned forward and she walked into his arms. As he felt, her kissed her scared face, he had a sharp pain his ribs. “Papa lay down for a minute. It's nothing.” But she had seen him lying on this grass. Just past the new building beyond the Museum. Stretched limp, looking dead, probably, while the cops went through his pockets.<sup>16)</sup>

그런데 이 交通事故는 우연한 事故라고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이 事故에는 無意識의로나마 Herzog의 意圖가 介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Herzog는 交通事故가 일어나기 바로 전 水族館에서 딸 Junie에게 물고기를 보여주며 자신의 슬픔을 Freud의 用語를 빌어 “partial return of repressed traumatic material, ultimately traceable to the death instinct”<sup>17)</sup>라고 죽음과 聯關시키고 있으며 이어서 父親의 葬禮式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는 자신의 所持品 중에 拳銃이 들어 있다는 事實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Junie를 태우고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自動車 뒤에는 Falcon 트럭이 過速으로 바싹 따라오고 있다는 점과 자신이 물고 있는 차의 brake가 아주 銳敏하다는 事實을 意識하고 있으면서도 Falcon 트럭을 追越시키기 위하여 갑자기 brake 페달을 밟고 있다는 事實에서 이 事件이 단순한 交通事故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다. 말하자면, 이 事故는 自身の 人生에 있어서의 失敗와 그의 罪責感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의 “masochistic behavior”이며 “self-punishment”로서 그의 無意識的 自殺未遂事件이라 할 수 있다. Herzog는 이 事件을 통하여 Henderson이 King Dahfu와 죽음의 象徴으로 나타나는 獅子 Atti를 통하여 삶과 죽음의 意味를 터득하고 있듯이 Herzog는 죽음과 直面함으로써 죽음의 恐怖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이 事故는 그에게 生과 死에 대한 觀念化 作業을 拋棄케 하며 Augie, Henderson과 마찬가지로 人間이 처한 現實을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理論적으로가 아니라 經驗적으로 把握하게 되는 契機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Bellow는 主人公들의 實際的 죽음을 다루고 있는 양이나 그들을 죽음의 문제와 緊密하게 연결시켜 作品의 主題를 表出하는데 利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Bellow가 죽음을 다루는 또 하나의 特徵은 “主題的”이라

16) *Ibid.*, pp. 281-82.

17) *Ibid.*, p. 280.



할 수 있다.

셋째 特徵은 “言表 없는 죽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Leventhal과 Herzog가自殺未遂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찾고 있고, 또 Augie와 Henderson이 죽음과의 끊임없는抵抗과鬭爭속에서도 결코 죽음에屈伏하는 일이 없이 죽음으로 부터의脫出에 성공하고 있음에 반하여 죽음의壓力에 여지없이 좌부라져 죽음에 이르고 마는 두主人公 Joseph와 Wilhelm이 Bellow의 소설에 나타나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앞서 밝혔듯이 Bellow가 Joseph와 Wilhelm의實際的 죽음을 그리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이 말은 Bellow가 두主人公 Joseph와 Wilhelm의 죽음을 “言表를 使用하지 않고迂廻的이고象徴的으로” 그려가고 있음을 말한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Joseph의 경우에는 그의自願入隊라는行爲를 그의 죽음으로提示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自願入隊가 그의 죽음이 되고 있음을補強하기 위하여一連의 image를 使用하고 있고, 또 Wilhelm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手法으로, — 물론 image 처리에 있어서는 *Dangling Man*에서 보다 훨씬體系的이고 效果的이기는 하나— 즉 Wilhelm의經濟的破産과主人을 알 수 없는 남의葬禮式行列에 우연히 끼어들어靈柩 속에 들어 있는屍體를 보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억누르지 못하고痛哭하는行爲로 그의 죽음을提示하고 있으며, K. M. Opdahl과 Clinton Trowbridge 그리고 M. Gilbert Potter가 Bellow는 “the image of a drowning man”을 使用하여 한人間的挫折과失敗를隱喻的으로描寫하고 있다고指摘하고 있듯이,<sup>18)</sup> “drowning man” 이미지와 “cannibalism” 이미지 등이 연결되어 Wilhelm이 죽음에 이르는過程을分明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다.

이 셋째 特徵, 즉 Bellow가 protagonist들의 죽음을 作品 속에서 다룰 경우에는 象徴과 imagery를 使用하여 “言表없는 죽음”으로提示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 점이本稿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Bellow의 特徵중의 하나인데, 이 Bellow 主動人物 Joseph와 Wilhelm의 “言表없는 죽음”은 한 마디로 “symbolic death”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먼저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實際的 죽음이 아니라 imagery를 통하여 나타난 죽음이라는 점과, 둘째 Joseph의自願入隊와 Wilhelm의 누구인지도 모르는 남의靈柩 앞에서도 터뜨리게 되는痛哭이라는行爲가 imagery에의 하여連結·強化된 죽음의象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두主人公의行爲의象徴與否야且置하더라도文學的象徴을 imagery의 一種이라 볼 때 두主人公의 죽음이 imagery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 자체가 하나의

18) Keith M. Opdahl, *The Novels of Saul Bellow*, pp. 96-97; Clinton W. Trowbridge, “Water Imagery in *Seize the Day*,” *Critique*, 9 (Spring 1968), pp. 62-73; M. Gilbert Potter, “The Scene as Image: A Reading of *Seize the Day*,” *Saul Bellow*, ed. Earl Robit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75), p. 54 참조.

象徴이 된다 하겠다. 더구나 *Dangling Man*과 *Seize the Day*에 나타나는 image들은 단순한 image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關聯하여 連貫되어 또 다른 意味領域(죽음)을 갖고 있으며, 또 作品 全体를 支配하는 意味나 暗示的의 背景을 形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들 image는 文學象徴으로서의 要件<sup>19)</sup>을 充實시키고 있는 것이다.

## II

앞 章에서 筆者는 Bellow가 그의 主動人物들의 죽음을 다루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主要한 特徵 中の 하나가 "symbolic death"임을 밝히고, Joseph와 Wilhelm의 죽음이 象徴的으로 提示되고 있음을 言及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고 *Dangling Man*의 마지막 場面에 나타나는 Joseph의 自願入隊와 *Seize the Day*의 마지막 場面에 나타나는 Wilhelm이 靈柩 속에 들어 있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屍體를 보며 터뜨리는 痛哭이 어떻게 하여 象徴的 죽음을 나타내게 되는가?

먼저 Joseph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의 죽음은 挫折당한 理想主義者의 삶의 拋棄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Joseph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過程이나 "自願入隊"가 갖고 있는 죽음으로서의 象徴性은 理解하기 위해서는 그의 죽음이 原因이 되고 있는 그의 理想主義의 實現이라는 慾求의 挫折이 어떻게 하여 일어나고 있으며, 그의 理想主義와 죽음과의 關係는 무엇이며, 그는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Bellow는 Joseph의 죽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點을 檢討해야 할 것이다.

Joseph의 理想主義者로서의 面貌는 *Dangling Man*의 첫 paragraph에서 부터 分明하게 드러난다.

For this is an era of hardboiled-dom. Today, the code of the athlete, of the tough boy... is stronger than ever. Do you have feelings? There are correct and incorrect ways of indicating them. Do you have an inner life? It is nobody's business but your own. Do you have emotions? Strangle them. To a degree, everyone obeys this code. And it does admit of a limited kind of candour, a close-mouthed straightforwardness. But on the truest candour, it has an inhibitory effect. Most serious matters are closed to the hard-boiled. They are unpractised in introspection, and therefore badly equipped to deal opponents with whom they cannot shoot like big game or outdo in daring.<sup>20)</sup>

19) 李商燮, 「文學批評用語事典」(서울: 민음사, 1978), pp. 129-32, pp. 183-187참조.

20) Saul Bellow, *Dangling Man*, p. 7.

Joseph는 그 自身の 表現을 빌자면 人間에 대하여 “There is no limit to what a man be. A man [is] what he [is] born to be. Satan and Church, representing God, did battle over him.... We [are] important enough...for our soul to be fought over.”<sup>21)</sup>라는 信念을 갖고 있었고, 또한 現實이 아무리 不潔하고 野獸的이며 野蠻스럽고 또 危險에 充滿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plan”, 하나의 “ideal construction”<sup>22)</sup>에 의하여 現實을 改革하고 改造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creature of plans”였다. 그는 이러한 信念下에서 卑劣한 現實을 拒否하고 改革하려는 “general plan”의 하나로 그의 마누라 Iva를 그의 計劃下에 統制하고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理想的 女性들 즉 “Burckhardt’s great ladies of the Renaissance and the less profound Augustan woman”<sup>23)</sup>과 같은 女性으로 만들려고 努力하였으며, 또 그의 親戚들에게는 그 規約이 「怨恨이나 暴惡, 殘忍을 禁하고 있는 集團」인 “a colony of spirit”를 實現할 것을 期待하는가 하면 Karl Marx의 理論에 따라 이 世上의 全部를 꼭대기에서 부터 밑바닥까지 한꺼번에 改革하려는 意圖에서 共產主義運動에 加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Joseph의 이러한 理想主義的 信念과 그것을 實現하려는 努力은 挫折에 이르게 된다. Iva는 그의 計劃에 따른 指導를 回避하는가 하면 그의 理想에 따라 그녀 自身이 形成되는 것을 拒否한다. 또 Joseph는 “Servatius party”에서 “a colony of spirit”를 求했던 親舊들로 부터는 그들 내부에 감추어진 野獸性만을 發見하게 되며, 催眠術에 걸린 Minna의 모습에서는 悲哀에 찬 人間 一般의 모습은 그리고 그녀의 內面意識을 通하여서는 人間の 內面に 감추어진 惡性만을 찾아낸다. 더구나 Joseph는 共產黨員만은 世上의 여느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存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狀大한 꿈을 가진 말하자면 全人類 또는 人間 一般을 위하여 獻身하는 사람들이라 믿으며 크나큰 期待를 걸고 뛰어들었던 共產主義運動에서도 Karl Marx의 理論에 따라 이 現實을 改革하는 일은 하나의 妄想에 지나지 않으며 그 結果는 自由를 拋棄하고 專制政治에 協力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事實과 함께 黨의 組織을 주무르는 者들 보다는 患者用 便器를 看守하는 看護員이 훨씬 더 人間一般을 위하여 奉仕하고 있다는 事實을 깨닫게 되어 더욱 큰 失意와 絶望에 빠지게 된다.

Joseph의 理想主義가 이처럼 挫折에 이르게 되는 過程은 人間은 神과 惡魔가 서서 그 靈魂을 빼앗으려 다투어 “inestimable prize”로 받아들이고 있던 그의 理想主義的 人間에 대한 信念이 무너지고 人間の 墮落相과 惡性을 體驗하는 過程이며 그 自身 속에도 墮落的

21) *Ibid.*, p. 73.

22) *Ibid.*, p. 115. “An ideal construction” means “a version of reality where one’s world of selfhood can be accepted and approved.”

23) *Ibid.*, p. 81.

가능성과 惡性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過程이다. 다시 말하면, Joseph는 이러한 挫折 過程을 겪게 됨으로써 結局에는 人間이란 커다란 善意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殺傷하는 者의 役割을 하고 있음과 이따금 暴風雨와 憎惡와 사람을 해치는 비가 우리들의 內部에서 發生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惡을 甘受하도록 運命지워져 있음을 切感하게 되며, 마침내는 그 自身이 "those who believe in a wholly good world do not understand depravity... The world is both [malevolent and good]"<sup>24)</sup>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善의 觀點에서 人間을 理解하려고 애써 온 立場에서 善과 惡의 立場에서 把握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으로 移行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Joseph가 그의 理想을 拋棄하고 現實을 受容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移行過程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理想을 固執하고 現實을 拒否하려는 그의 동부림이며 葛藤의 過程이다. 그래서 그는 그가 싸우고 있는 것은 적어도 그에게 惡이 저질러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 그는 다음과 같은 見解에는 어느 정도 眞理가 있다고 認定하면서도 自身만은 그러한 憎惡心의 捕虜가 된 적이 없다고 抗辯하기도 한다.

There might be some justice in the view that man was born the slayer of his father and of his brother, full of instinctive bloody rages, licentious and unruly from his earliest days, an animal who had to be tamed.<sup>25)</sup>

그러나 Joseph는 그의 理想主義的인 人間에 대한 態度와 抗辯에도 불구하고 自身の 內部에도 惡性이 그리고 墮落의 可能性이 存在하고 있음을 拒否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Bellow가 sexual image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Joseph는 그의 潜在的 惡性이나 墮落의 可能性을 그의 兄嫂 Dolly와 그의 조카 Etta에 대한 性衝動을 통하여 確認하고 있기 때문이다.

Joseph는 Dolly에 대하여 그녀는 단정한 容貌의 所有者이며 훌륭한 몸매이고 유망이 너무 커 보이기 하지만 그런게로 魅惑的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블루넷 빛갈의 살갓과 아름다운 머리칼을 땅아올려 깊이 드러내 보이는 그녀의 목덜미야말로 여자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特質이라고 생각하면서 豫言者 Isaiah가 왜 다음과 같이 외치게 했는가를 理解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한다.

'Because the daughters of Zion are haughty, and walk with stretched forth necks and wanton eyes, walking and mincing as they go, and making a tinkling with their

24) *Ibid.*, p. 24.

25) *Ibid.*, p. 32.

feet: therefore the Lord will smite with a scab the crown of the daughters of Zion, and the Lord will discover their secret parts.<sup>26)</sup>

또 Joseph는 Dolly와 그 自身の 마음 속에 同一한 聯想이 存在하고 있음과 목덜미와 性慾과 生殖과의 聯關關係를 말하면서 그러한 事實에 일종의 기쁨을 느끼고 있음을 告白한다.

It astonishes me the same association should be in both our minds, though with a different cast. Certainly it is the 'stretched forth necks', or delicacy in conjunction with the rugged ancient machinery of procreation, that has for a long time been identified in my imagination with feminine nature. Here the parallel ends, for I am the very opposite of vindictive in regard to this duality and have, indeed, found pleasure in recognizing it.<sup>27)</sup>

Joseph의 sexual guilt sense는 그의 조카 Etta와도 이어진다. 그가 크리스마스 저녁에 兄 Amos 집에 招待되었을 때 Etta와 電蓋使用 문제 때문에 鬭爭이 일어나고 Etta를 그의 무릎 위에 끌어당겨 그 自身の 두 다리 사이에 끼고 불기를 때리는 騷動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騷動은 Etta에 대한 그의 "sexual attack"의 image를 提供하고 있다.

I [Joseph] caught her wrist and wrenched her towards me.

'Damn you, Joseph, let go! Let me go' The album went crashing. With the fingers of her free hand she tried to reach my face. Seizing her by the hair fiercely, I snapped her head back; her outcry never left her throat; her nails missed me narrowly. Her eyes shut tightly, in horror.

'Here's something from a beggar you won't forget in a hurry,' I muttered. I dragged her to the piano bench, still gripping her hair.

'Don't!' she screamed, recovering her voice. 'Joseph! You bastard!'

I pulled her over my knee, trapping both her legs in mine.

I did not release her at once. She no longer fought against me but, with her long hair reaching nearly to the floor and her round, nubile thighs bare, lay in my lap. Whether this was meant to be an admission of complicity and an attempt to lighten my guilt, or whether she wished them to see and savour it fully, I did not know at first.<sup>28)</sup>

이와 더불어 Joseph 自身이 墮落의 可能性과 sexual guilt를 도저히 認定치 않을 수 없게

26) *Ibid.*, p. 50.

27) *Ibid.*, p. 50.

28) *Ibid.*, p. 58.

되는 것은 그가 Iva 몰래 깊이 빠져 버리게 되는 Kitty Daumler와의 情事를 통해서이다. Joseph는 Kitty와의 情事關係로 하여 그에게도 끓어오르는 貪慾이 自身을 支配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그는 더욱 깊이 挫折의 深淵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Joseph의 理想主義者로서의 挫折은 죽음에 대한 恐怖와 깊이 聯關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自身을 包含하여 우리 人間의 惡性と 墮落에 대한 處罰이라는 形態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Joseph의 處罰로서의 죽음에 대한 恐怖에 直面하여 惡夢 속에서 보게 되는 幻想이 默示錄에 나오는 人類最後의 날을 聯想케 하는데서도 나타난다.

We [Joseph and Iva] had an enormous sun set, a smashing of gaudy colours, apocalyptic reds and purples such as much have appeared on the punished bodies of great saints, blues heavy and rich.<sup>29)</sup>

또 그가 어렸을 때 잘라 놓은 그의 긴 머리칼과 그의 외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書齋에서 찍은 사진을 聯關시켜 언젠가 自身의 머리도 그의 외할아버지처럼 되어 외할아버지와 같은 頭蓋로 변할 것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의 運命으로 받아들이며, Joseph의 얼굴이 잘 생겼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Harscha 夫人이 “*Mephisto war schön*”<sup>30)</sup>이라고 말했을 때도 Joseph는 Harscha 夫人이 自身의 얼굴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떤 惡의 그림자를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自身에게 숨어있는 惡性と 自身의 죽음을 聯關시키고 있기도 하다.

또 한편에서 處罰로서의 죽음에 대한 恐怖는 그의 sexual guilt와도 깊이 聯關되며 또 한편에서는 그의 失敗와 墮落에 대한 아버지로 부터의 處罪과 關聯을 갖고 있다. Joseph는 Dolly에 대하여 淫慾을 느끼고 그리고 Etta와 사이에 “sexual attack” 騷動을 벌인 후에 외할아버지의 頭蓋骨과 같은 運命이 기다리고 있고, 그 할아버지의 頭蓋骨이 자신을 위로 부터 덮쳐 먹어치운다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Kitty와의 情事關係를 清算하고 돌아오던 날 밤에는 Joseph는 濕地の 물웅덩이를 지나가며 죽음이 도마뱀처럼 웅덩이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墮落과 罪惡感에 대한 處罰로서의 죽음에 대한 恐怖는, Fried가 人間의 內面 無意識의 世界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 주는 精神心理的 現象이 꿈이라고 指摘하고 있듯이<sup>31)</sup> 몇 개의 꿈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Joseph가 “...we

29) *Ibid.*, p. 102.

30) *Ibid.*, p. 63.

31) Quoted in Keith M. Opdahl, *The Novels of Saul Bellow*, p. 123.

are called upon to accept the imposition of all kinds of wrongs.”<sup>32)</sup>고 생각하며 大量虐殺된 猶太人의 屍體가 말구유나 乳母車 같은 것에 하나씩 담겨져 즐비하게 놓여 있었는데 어느 家族의 부탁을 받아 屍體를 引受하러 갔던 꿈이었다. 그는 이 꿈 속에서 “Tanza”로 끝나는 地名을 생각하고는 Constanza와 Bucharest에서 루마니아 反猶太團體인 “Iron Guard”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虐殺되어 屠殺場의 소갈고리에 매달려 있었던 場面은 聯想하며, 결국에는 머리며 손발을 찢린 어린애 같은 얼굴을 한 屍體, 그리고 그 屍體 사이를 쥐새끼처럼 돌아다니는 案内者를 바라보며 地獄과 地獄에 떨어진 者의 恐怖雰圍氣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밖의 꿈들도 恐怖感이 조금 덜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Joseph의 죽음에 대한 恐怖感을 보여주고 있다.

Some of the other dreams have been only slightly less dreadful. In one I was a sapper with the Army in North Africa. We had arrived in a town, and my task was to render harmless the grenade traps in one of the houses. I crawled through the window, dropped from the clay sill and saw a grenade wired to the door, ridged and ugly. But I did not know where to begin, which wire to touch first. My time was limited; I had other work before me. I began to tremble and perspire and, going to the far end of the room, I aimed my pistol long and carefully at the ridges and fired. When the din subsided, I realized that if I had hit the mark I would have killed myself.<sup>33)</sup>

이러한 죽음의 문제와 恐怖 속에서 Joseph는 죽음을 克服하고 超越하려는 試圖를 하게 된다. 그가 이러한 試圖를 하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죽음이 人間의 價値와 無限한 可能性을 追求하는 그의 理想主義者의 慾求를 가로막고 있는 障礙物로, 다시 말하면 人間을 制約하는 가장 큰 要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한편에서는 죽음의 超越이란 方法을 통하여 “whole man”을 志向함으로써 죽음의 恐怖에서 벗어나려는 心理的 衝動 때문이다. Joseph는 죽음을 超越하려는 試圖에 있어서도 理想主義者다운 面貌를 여실히 보여 준다. 그는 醜雜하고 卑劣한 現實 속에서 “to be human is terrifying”<sup>34)</sup>임을 自覺하고 自身の 求濟를 위하여, 一般 사람들이 選擇하는 “the universal one, God”에 依支하는 方法을 失意와 混亂 속에서 切迫한 肉體上의 喪失을 두려워한 나머지 求濟만을 바라고 治療方法을 묻지 않는 患者와 마찬가지로 “a miserable surrender”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그들과는 달리 “reason”과 “ideal construction”에 의하여 죽음의 克服과 超越을 試圖하게 된다.

32) Saul Bellow, *Dangling Man*, p. 98.

33) *Ibid.*, p. 100.

34) *Ibid.*, p. 77.

그러나 理性의 勝訴判決을 宣稱했던 Joseph는 마침내 理性의 限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며 더구나 "ideal construction" 그 自体가 죽음을 克服하는 길이 아니라 죽음에 서의 逃避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敷衍하면, 그는 "Christian Science literature" 문지를 가득 바구니에 담고 다니며 아무나 붙잡고 基督教信仰을 說破하는 한 夫人을 통하여 基督教信仰에 의하여 現實을 改革하고 죽음을 超越할 수 있다는 그녀의 盲目的 基督教信仰인 그녀의 "ideal construction"이 그 自身の "reason"에 의한 "ideal construction"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事實을 발견하며 이 基督教信仰이라는 "ideal construction"에 사로잡힌 한 夫人의 現實感覺이 사라져 버린 對話와 모습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만을 發見하게 됨으로써 "reason"과 "ideal construction"에 의한 죽음이 超越이 不可能함을 切感하게 된다. 이제 죽음을 人間을 制約하는 커다란 힘이 人間의 惡性과 墮落에 따르는 處罰로 받아들이고 恐怖를 느끼며 逃避와 超越을 試圖했던 Joseph는 그 自身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길이 외에 다른 選擇의 여지가 주어지지 아니함을 깨닫는다. 결국 Joseph는 그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 누르고 있던 죽음의 問題를 죽음으로 逃避함으로써 解決하려는 irony를 보여주게 된다. 그가 죽음을 抵抗의 로나마 受容하고 있음은 그 自身の "other-self"인 "spirit of Alternative"의 對話를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You know how it is. I'm harried, pushed, badgered, worried, nagged, heckled....'

'By what? Conscience?'

'Well, it's a kind of conscience. I don't respect it as I do my own. It's the public part of me. It goes deep. It's the world internalized, in short.'

'What does it want?'

'It wants me to stop living this way. It's prodding me to the point where I shall no longer care what happens to me.'

'When you will give up?'

'Yes, that's it.'

'Well, why don't you do that? Here you are preparing yourself for further life....'

'And you think I should quit.'

The vastest experience of your time doesn't have much to do with living. Have you thought of preparing yourself for that?'

'Dying? You're angry because I threw the orange peel.'

'I mean it.'

'What's there to prepare for? You can't prepare for anything but living. You don't have to know anything to be dead. You have merely to learn that you will one day be dead. I learned that long ago. No, we're both joking. I know you didn't mean that.'<sup>35)</sup>

35) *Ibid.*, p. 137.



Joseph가 죽음으로 逃避하고 있다고 말할 경우 그가 實際적으로 죽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은 그가 죽음으로 받아들여 抵抗적으로 拒否하고 있었던 狀況이나 條件을 마침내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말이다. *Dangling Man*에서 Joseph의 自願入隊가 그에게 죽음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軍隊라는 社會가 바로 그에게는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Joseph는 Goethe의 말을 빌어서 "Continued life means expectation. Death is the abolition of choice. The more choice is limited, the closer we are to death"<sup>36)</sup>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選擇의 餘地가 排除된 狀況이며 選擇의 拋棄는 바로 生의 拋棄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軍隊라는 選地의 여지가 다른 어느 社會보다도 철저히 排除된 社會로 自願入隊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選擇權의 拋棄가 되며 그것은 바로 죽음의 選擇이며 동시에 삶 的 拋棄가 되고 있는 것이다.

Bellow는 Joseph의 이러한 軍入隊와 죽음을 連結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image들을 교묘히 다루고 있다. Bellow의 이러한 意圖는 *Dangling Man*이라는 題目이 보여주는 "death image"에서 부터 역역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 "dangling"이라는 表現은 Canada 國籍의 猶太人이라는 이유로 軍入營이 保留되고 職場도 잃어 버린채 社會적으로 孤立된 "영거주출 하고" "허공에 매달린" 듯한 Joseph의 疎外狀況을 暗示하며 그러한 Joseph의 狀況이 現代人이 처해 있는 共通의 問題狀況으로 連結되는 metaphor를 提供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dangling" image는 페이지를 거듭함에 따라 "cell", "closed helpless jail"의 image와 더불어 "strangle"과 "hang"의 image로 轉換되고 있어서 Joseph의 問題狀況이 監獄과 連結되며 그 결과 그의 죽음을 역역하게 暗示하게 된다.

이와 함께 Bellow는 Joseph가 스스로 選擇權을 拋棄하여 죽음에 이르는 過程을 小説이 展開됨에 따라, 즉 Joseph가 自願入隊하기 까지 나타나는 여러가지의 "death image"의 變化를 통하여 그의 軍入營이 죽음에 이르는 軌跡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먼저 Joseph는 끊임 없이 죽음을 意識하며 죽음의 恐怖에 사로잡힌 人物로 登場하여 그가 한 단계 한 단계 軍入營에 가까와 짐에 따라 죽음을 象徵하는 人物이나 죽음의 image가 나타나고 사라진다.

Joseph가 살고 있는 집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Kipper 夫人이 다가 올 Joseph의 죽음을 暗示하듯 寢床에 누어 있고 Joseph가 삶을 포기하게 되는 小説의 末尾에 이르게 되면 급격히 衰弱해져서, Joseph에게는 象徵的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入隊를 決心하는 날 죽고만 다. 물론 Joseph의 "double"로 나타나는 Mr. Vanaker는 이사를 가서 사라지게 되고 우편 배달부는 Joseph에게 召集令狀을 건네 주면서 손으로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한다. Iva는

36) *Ibid.*, p. 122.

Joseph에게 "your last week"라는 말로 그에게 最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暗示한다. Joseph가 入隊準備를 하기 위하여 丈人宅을 찾아갔을 때도 옛 침대 위에 덮혀 있는 케르시아식 나염포에는 한 여자가 땅에 묻혀 있는 愛人 위에 꽃을 뿌리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이고, 더구나 돌밑에 드러난 男子의 壽衣가 그의 눈길을 끈다. 그의 丈人은 이제 終末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려는 듯이 시계를 贈物로 주고 있다.

드디어 Joseph는

And I am sorry to leave her [Iva], but I am not at all sorry to part with the rest of it. I am no longer to be held accountable for myself; I am grateful for that. I am in other hands, relieved self-determination, freedom cancelled.

Hurray for regular hours!

And for the supervision of the spirit!

Long live regimentation! 37)

이라는 irony에 찬 한마디를 남기고 軍隊社會로 아니 죽음속으로 逃避하고 만다.

#### IV

*Seize the Day*의 protagonist Wilhelm의 죽음은 New York로 代辯되는 現代 資本主義社會의 秩序에 適應하지 못한 한 人間의 破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破局과 죽음은 imagery에 의하여 連結되어 Wilhelm이 누구인지 모르는 남의 靈柩 속의 屍體 앞에서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없이 흐느끼는 마지막 場面에 의하여 象徴적으로 提示되고 있다. 그렇다면 Wilhelm의 破局은 어떻게 하여 그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가 죽음에 이르는 過程은 어떻게 imagery와 連結되어 나타나는가?

Wilhelm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의 破局은 한편으로는 그의 經濟的 破綻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의 精神的 價値觀의 破壞로 나타난다. 그의 經濟的 破綻은 물론 그의 死活이 걸려 있는 그의 마지막 700弗이 Tamkin과의 同業投資에서 몽땅 잃게 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게 되며, 그의 精神世界의 破壞는 그가 가장 所重하고 高貴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가 그의 아버지인 Adler 박사를 비롯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 부터 否定되고, Wilhelm은 아직 그들이 내세우는 價値體系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破局的 시작은 무엇보다도 Adler 박사의 世界

37) *Ibid.*, p. 159.

와 Wilhelm의 世界의 對立에서 찾아볼 수 있다. Adler 박사의 世界는 合理性과 能率을 바탕으로 經濟力 즉 돈에 의하여 움직이는 現代資本主義 世界 秩序이며, Wilhelm의 世界는 感情과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感情的 慾求와 衝動에 의하여 움직이는 古典의 舊世界의 秩序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Wilhelm을 둘러싸고 있는 冷酷한 “New York”의 秩序와 그가 憧憬하고 있는 田園的 “Roxbury”의 秩序와의 對立이기도 하다. 이러한 對立의 結果로 일어나는 Wilhelm의 沒落은 — 아마 Bellow도 그러한 結果 즉 現代資本主義 社會 속에서 浪漫的 人間의 高貴함이 存在할 餘地가 남아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Wilhelm을 英雄의이고 완벽하며 能力 있는 人物로 내세워 그의 高貴한 價値를 具現시키려 하기 보다는 能力과 性格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缺陷을 갖고 있는 Wilhelm의 沒落을 통하여, 敗北하고 마는 Wilhelm의 世界가 오히려 勝利를 거두게 되는 Adler 박사의 世界 보다는 아름답고 高貴함을 보여주려 했을 것으로 짐작되듯이 — 오히려 당연한 歸結인지도 모른다.

Wilhelm의 破局을 Adler 박사의 世界와 Wilhelm의 世界의 對立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Wilhelm의 經濟的 精神的 破局은 Wilhelm의 性格的 缺陷과 그가 처해 있는 社會的 環境에 起因한다. Wilhelm의 性格的 缺陷은 感情的이고 衝動的이며 非合理的이고 柔弱하다는데 있다. 그는 모든 일을 따져보고 또 따져서 해서는 안되는 줄 알고 또 안된다고 決定을 내린 후에 感情的 衝動이라든지 “pride”라든지 하는 것에 의하여 決定을 뒤엎고 그릇된 決定을 내리게 된다. 먼저 그의 人生失敗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Hollywood로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過程만 하더라도 그러하다. 그는 그의 父母의 同意도 얻지못 한채, 이러한 處身 즉 Hollywood로 간다는 것이 극히 無謀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고, 떠나서는 안될 理由가 백가지도 더 있음을 뻔히 깨닫고 있으면서 갖가지 不安과 恐懼에 가슴을 조이며 집을 떠나고야 말았다. 또 그는 그의 아내 Margaret와도 結婚 안하기로 수십번 結心을 하고서도 끝내 결혼을 하고 말았다. Tamkin과의 證券投資도 그렇다. Tamkin과의 證券投資를 앞졌다고 作定을 하고서도 결국은 그의 마지막 700弗을 몽땅 건네주고 만다.

또 그는 物質的인 것보다 오히려 精神的인 것 또는 感情的 어떤 補償을 要求하는 價値體系를 갖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커다란 犧牲을 치르면서도 家族에게서는 愛情을 希求하며 이웃에게는 믿음을 渴望하는 그러한 人間關係를 維持하려고 애쓰는 理想主義的 人物이 되고 있다. Tamkin의 말을 빌자면 Wilhelm은 苦悶을 해야 하고 남의 도움없이 살아가갈 수 없는 “a man… humble for life, who wants to feel and live, …not wanting… to exchange an ounce of soul for a pound of social power”<sup>38)</sup>가 되고 있는 것이다.

38) Saul Bellow, *Seize the Day* (Penguin Books, 1951), p. 87.

그런데 問題는 Wilhelm이 그 自身의 性格的 缺陷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높이 評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自身을 "such a jerk as not to prepare for anything and just go on luck and inspiration"<sup>39)</sup>이니 "the carrier of a load which was his own self, his characteristic self,"니 또는 "a visionary sort of animal"<sup>40)</sup>이라고 부름으로써 自身의 過誤를 어느 정도 認定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自身이 主張하는 世界가 아버지인 Adler 박사나 Tamkin의 世界보다 훨씬 高貴하고 價値가 있는 世界임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우 冷酷한 事實의 規則에 의하여 支配되며 또 이 規則은 社會 속의 個人에게 매우 嚴格한 자기 訓練과 作業을 要求하고 이 規則에 順應하는 者에게만 거기에 合當한 物質的 代價와 社會的 成功을 돌려주는, 말하자면 作業倫理와 鬭爭的 個人主義에 의하여 形成되는 資本主義社會<sup>41)</sup>에서 즉 New York에서 Wilhelm이 살아남을 수 있는 餘地란 전혀 存在치 않는다. New York에서 生存할 수 있는 者들이란 Adler 박사나 證券去來所의 "German manager"처럼, 資本主義社會에서 살아가는 人들들의 生命을 維持하는데 필요한 血液이라 할 수 있는 돈을 벌어들이는데 冷徹하고 非常한 能力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Tamkin이나 Margaret처럼 남의 돈을 "parasite"처럼 寄生하여 빨아들일 수 있는 者들이다. 그러므로 New York는 Wilhelm에게 마치 가스과 같은 곳이 되고 있다. 색이 날으고 거기에서는 머리가 壓迫을 받아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며 그의 숨통을 조여 窒息하도록 한다.

That sick Mr. Perls at breakfast had said that there no easy way to tell about the sane from the mad, and he was right about that in any big city and especially in New York—the end of the world, with its complexity and machinery, bricks and tubes, wires and stones, holes and heights.... And it was the punishment of hell itself not to understand or be understood, not to know the crazy from the sane, the wise from the fools, the young from the old or the sick from the well. The fathers were no fathers and the sons no sons. You had to talk with yourself in the daytime and reason with yourself at night. Who else was there to talk to in a city like New York?<sup>42)</sup>

그래서 Wilhelm은 投資한 마지막 700弗을 回收하여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을 찾아 New York를 떠나 그가 그러는 Roxbury로 逃避하려 한다. 그러나 그런 機會는 끝내 그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는다.

39) *Ibid.*, p. 19.

40) *Ibid.*, p. 44.

41) Woo-Chang Kim (ed.), *Seize the Day with Essays in Criticism* (Seoul; Shina-sa, 1977), p. 37.

42) Saul Bellow, *Seize the Day*, pp. 89-90.

또 한편에서 Wilhelm의 經濟的 破綻이 그의 죽음과 聯關되는 것은 Wilhelm을 제외하고는 Dr. Adler, Tamkin, Margaret를 비롯해서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그들의 生命을 維持시켜 주는 "blood"로 여기고 있으며 사실상 New York에서는 *Newsweek* 最近號가 "The average American, ... soberly regards money as the sole means of ensuring personal freedom and independence..."<sup>43)</sup>라고 밝히고 있듯이 돈이 그들의 生存을 保存해 줄 수 있는 唯一한 手段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殺人이라도 不辭 하겠다는 心情으로 證券市場으로 나가게 되며 돈에는 貪慾과 殺氣가 일하게 된다. Dr. Adler가 단 하나 남아있는 아들이 도와달라는 乞請도 冷精하게 拒絶하는 것도 바로 Wilhelm을 自身の 血液인 돈을 빨아가는 "parasite"와 같은 存在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아들을 도와 주게 되면 自身の 生存에 影響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오직 Wilhelm만이 왜 이렇게도 돈이라면 四足を 못쓰는가? 돈이 없으니 이 世上을 下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Uch! How they love money, thought Wilhelm. They adore money! Holy money! Beautiful money! It was getting so that people were feeble-minded about everything except money. While if you didn't have it you were a dummy, a dummy! You had to excuse yourself from the face of the earth. Chicken! that's what it was. The world's business. If only he could find a way out of it.<sup>44)</sup>

이제 Wilhelm이 설 곳은 精神的으로나 肉體的으로나 物質的으로나 남아 있지 않다. Dr. Adler가 Wilhelm을 自身の 血液을 빨아가는 寄生蟲으로 보고 있듯이 Wilhelm은 Margaret라는 寄生蟲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證券投資에서 그의 마지막 남아 있던 血液인 700弗을 Tamkin이라는 "parasite"에게 팔아버리고 만다. 그래서 죽음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Seize the Day*에서 Wilhelm의 죽음이 imagery에 의하여 提示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많은 研究가 이루어졌다. K. M. Opdahl과 C. W. Trowbridge는 *Seize the Day*에 나타난 "water imagery"를 分析하고 있으며, 특히 前者는 "the image of drowning man"이 使用되어 "human failure"가 作品 속에 描寫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45)</sup> 특히 M. Gilbert Porter는 이 두 사람의 研究結果를 더욱 体系化하여 "The Scene as Image: A Reading of *Seize the Day*"에서

43) *Newsweek*, November 23, 1981, p. 40.

44) Saul Bellow, *Seize the Day*, p. 41.

45) Keith M. Opdahl, *The Novels of Saul Bellow*, pp. 96-97; Clinton W. Trowbridge, "Water Imagery in *Seize the Day*," pp. 62-73.

The metaphor, ... depicts human failure through the image of a drowning man. Tommy Wilhelm has made a mess of his life, and now, gasping for breath and grabbing, panic-stricken, at straws (Tamkin), he sinks wearily beneath the pressures of his own making. The "tenor" of the total image that is the book is human failure. The "vehicle" in which this subject matter is embodied is the image of drowning, and each scene in the novel functions as a dimension of the total image, the "texture" of the narrative presentation.<sup>46)</sup>

이라고 말하면서 *Seize the Day*의 場面을 7個로 나누어 "sea image"와 "drowning man" image를 分析하고 Wilhelm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過程이 imagery에 의하여 提示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47)</sup> 그러나 Wilhelm의 죽음은 "water image"나 "sea image"가 "drowning image"와 結合하여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한편에서는 "cannibalism" image와 "beast" image가 結合하여 Wilhelm을 "hemorrhaged hippopotamus"로, 그리고 그것이 parasite들에 의하여 힘을 잃고 窒息하여 溺死해 가는 過程으로 提示하여 Wilhelm의 최후의 場面이 죽음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Wilhelm의 象徴의 죽음은 *Seize the Day*를 構成하고 있는 7個의 part에 따라 漸進적으로 나타난다.

Part I에서는 作品의 背景이 되고 있는 New York가 M. G. Porter가 잘 밝혀놓고 있듯이 "water imagery"에 의하여 나타나며,

Water imagery begins immediately. "The elevator sank and sank" and the carpet in the lobby "billowed toward Wilhelm' feet"(3); "French drapes like sails kept out the sun," and, outside, resembling an anchor is a "great chain that supported the marquee of the movie house directly underneath the lobby"(4). The Ansonia Hotel across the street looks "like marble or like sea water, black as slate in the fog." Its image is reflected in the sun as though "in deep water"(5). Wilhelm walks to the newsstand, which provides the setting for the first scene. In the glass cigar counter Wilhelm sees his reflection, but not clearly, because of "the darkness and deformations of the glass" (6), a watery reflection.<sup>48)</sup>

여기에 Wilhelm이 "water creature"인 "hippopotamus"로 空想스럽게 나타나서, 지금까지 뚜렷한 形体는 없었지만 오랫동안 豫見해온 커다란 不幸이 그 自身에게 닥쳐오고 있음과

46) M. Gilbert Forter, "The Scene as Image: A Reading of *Seize the Day*," p. 54.

47) "water image"와 "the image of a drowning man"은 M. G. Porter의 "The Scene as Image: A Reading of *Seize the Day*"에서 자세히 밝혀지고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論外로 한다.

48) *Ibid.*, p. 57.

그가 처해 있는 問題狀況이 經濟的 破綻임을 暗示한다.

Part II에서는 具體的으로 Wilhelm이 처해 있는 問題가 바로 돈과 Adler 박사와의 價値觀의 對立 때문임이 表面化되며, 돈은 生命의 源泉인 血液으로 그리고 돈의 枯渴은 죽음으로 連結되어 나타나서 Wilhelm을 마지막 700弗만이 남아있는 "hemorrhaged hippopotamus"의 image로 그려놓고 있다.

Uch! How they love money, thought Wilhelm. They adore money! Holy money! Beautiful money! It was getting so that people were feeble-minded about everything except money. While if you didn't have it you were a dummy, a dummy! You had to excuse yourself from the face of the earth. Chicken! That's what it was. The world's business. If only he could find a way out of it.<sup>49)</sup>

He thought, The money! When I had it, I flowed money. They bled it away from me. I haemorrhaged money. But now it's almost all gone. and where am I supposed to turn for more?<sup>50)</sup>

Part III에서는 Wilhelm의 돈을 팔아가고 있는 그의 마누라 Margaret가 連關되어 "parasite image"로 나타나며 Wilhelm의 窒息, 卒倒하는 몸짓을 통하여 "drowning hemorrhaged hippopotamus"의 image가 분명해 진다.

'Strange, Father! I'll show you what she's like.' Wilhelm took hold of his broad throat with brown-stained fingers and bitten nails and began choke himself.

'What are you doing?' cried the old man.

'I'm showing you what she does to me.'

'Stop that - stop it!' the old man said and tapped the table commandingly.

'Well, Dad, she hates me. I feel that she's strangling me. I can't catch my breath. She just has fixed herself on me to kill me. She can do it at long distance. One of these days I'll be struck down by suffocation or apoplexy because of her. I just can't catch my breath.'

'Take your hands off your throat, you foolish man,' said his father.<sup>51)</sup>

Part IV에서는 Wilhelm이 "parasite"들에게 피를 팔리고 죽어가고 있음이 piranha들에게 뜯기고 解体되어 뼈만 남게 되는 Brahma 황소의 image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며

49) Saul Bellow, *Seize the Day*, p. 41.

50) *Ibid.*, p. 45.

51) *Ibid.*, p. 53.

When I [Wilhelm] have the money eat me alive, like those piranha fish in the movie about the Brazilian jungle. It was hideous when they ate up that Brahma bull in the river. He turned pale, just like clay, and in five minutes nothing was left except the skeleton still in one piece, floating away.<sup>52)</sup>

Wilhelm은 이 세상 모든 바닷물이自身에게 밀려 덮치고 있음을意識한다.

The waters of the earth are going to roll over me.<sup>53)</sup>

Part V에 이르면 Tamkin은 Wilhelm에게 "present, present, eternal present, like a big, huge, giant wave-colossal, bright and beautiful, full of life and death, climbing into the sky, standing in the seas"<sup>54)</sup>를 붙잡으라고 勸諭한다. Wilhelm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Part VI에서는 "無秩序"위에 "混沌"과 "暗黑"이 그를 뒤덮는다. 그는 "유리창너머로 늑대와 같이 으르렁대는 소리"를 들으며 이 世上에 사람들이 파리처럼 죽어가고 있는데自身은 그런 가운데서 살려고 지나치게 애쓰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마침내 그의 마지막 血液인 700弗을 證券市場에서 株式의 暴落으로 잃게 된다. 그는 이제 죽음을 直感하고 瀕死하기 直前의 모습이 된다.

He said to himself, I will not cry in front of them like a kid, even though I never expect to see them again. No! No! And yet his unshed tears rose and rose and he looked like a man about to drown.<sup>55)</sup>

마지막 Part VII에 이르면 Wilhelm은 마지막으로 期待했던 아버지 Adler 박사로 부터의 도움도 끝내 얻어내지 못하게 되고 그의 마누라 "parasite" Margaret로 부터 最後의 一擊을 받게 된다. Wilhelm은 마누라에게 "You must realize you're killing me, You can't be as blind as all that. Thou shalt not kill! Don't you remember that?"<sup>56)</sup>라고 호소하지만 Margaret의 대답은 Wilhelm을 치고 때리고 짓밟고 최후의 숨이 끊어지려는 것을 確認하려는 듯이 "Are you in misery?" "But you deserve it."<sup>57)</sup>였다. Wilhelm은

52) *Ibid.*, p. 82.

53) *Ibid.*, p. 83.

54) *Ibid.*, p. 96.

55) *Ibid.*, pp. 111-12.

56) *Ibid.*, p. 102.

57) *Ibid.*, p. 121.



混沌된 意識 속에서 "I am suffocating." "You've got to let me breathe." "I die, I hide, I want."를 되뇌인다. 어느 사이엔가 "hemorrhaged hippopotamus" Wilhelm은 자신도 모르게 葬禮式 行列에 自身이 끼어들어 누구인지도 모르는 靈柩속의 屍體를 바라보며 북받치는 感情을 억제치 못하고 한없이 흐느끼고 있는 自身을 發見한다. 그는 물밑듯이 밀어닥치는 音樂소리를 들으며 모든 것을 拋棄한 채 슬픔보다도 더 깊은 죽음의 深淵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그는 낮모르는 靈柩 속의 屍體를 통하여 自身の 죽음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

Standing a little apart, Wilhelm began to cry. He cried at first softly and from sentiment, but soon from deeper feeling. He sobbed loudly and his face grew distorted and hot, and the tears stung his skin. A man—another human creature, was what first went through his thoughts, but other and different things were torn from him. What'll I do? I'm stripped and kicked out... Oh, Father, Paul? My children. And Olive? My dear! Why, why, Why—you must protect me against that devil who wants my life. If you want it, then kill me. Take, take it, take it from me.

Soon he was past words, past reason, coherence. He could not stop. The source of all tears had suddenly sprung open within him black, deep, and hot, and they were pouring out and convulsed his body, bending his stubborn head, bowing his shoulders, twisting his face, crippling the very hands with which he held the handkerchief. His efforts to collect himself were useless. The great knot of ill and grief in his throat swelled upward and he gave in utterly and held his face and wept. He cried with all his heart...

The flowers and lights fused ecstatically in Wilhelm's blind, wet eyes; he had hidden himself in the center of a crowd by the great and happy oblivion of tears. He heard it and sank deeper than sorrow, through torn sobs and cries toward the consummation of his heart's ultimate need.<sup>58)</sup>

## V

Joseph와 Wilhelm의 "象徴的 죽음"은 그 共通의 特徵으로 "生の 拋棄"라는 形態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特徵은 그들의 "象徴的 죽음"을 自殺이라는 側面에서 說明할 수 있는 可能性을 던져주고 있다.

*Encyclopaedia Britannica*에 보면 自殺은

58) *Ibid.*, pp. 125-26.

The term suicide means the act or instance of taking ones own life voluntarily and intentionally but the term can also be applied to any person who attempts to take; or has a tendency to take, his own life. It also refers to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nd groups, even of nations, that may bring about their own self-destruction.<sup>59)</sup>

이라고 定義되고 있다. 이 *Encyclopaedia Britannica*의 定義가 보여주고 있듯이 自殺의 特性은 한마디로 “自發的”이고 “意圖的”인 自身の 生命의 拋棄行爲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自殺을 社會學的 側面에서 研究한 Emile Durkheim은 “모든 形態의 自殺에 있어서 共通된 特性은 自殺者가 그 動機가 무엇이던간에 行動의 순간에 自身の 行動의 結果를 알고 行動하는 點”이라고 말하면서 “結論적으로 自殺은 被害者가 自身에게 일어날 結果를 알고 行하는 죽음의 事例들”<sup>60)</sup>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 定義를 보면 Durkheim은 “自發的”이며 “意圖的” 行爲라는 意味를 “行動의 結果를 알고 行하는 行動”이라고 表現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自發的이고 동시에 意圖的으로 自身の 生命을 拋棄하는 行爲者는 분명히 自身の 行爲의 結果를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自殺이나 아니냐를 區別하는데 있어서 死者의 行爲가 自發的이었고 意圖的이었느냐 하는 點을 把握하기란 死者가 自身の 行爲의 結果가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事實을 豫測하고 있었느냐 하는 點을 가려내기 보다 힘들고 曖昧模糊할 것이다. 더구나 自身の 行爲의 結果가 죽음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事實을 認知하면서도 非自發的이며 非意圖的인 行爲로서 죽음을 招來할 경우를 假定할 수 있으므로 Durkheim의 “行動의 結果를 알고 行하는 行動”이라는 表現이 보다 包括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Durkheim의 立場에서 보면 Joseph와 Wilhelm의 “象徴的 죽음”은 自殺로서의 構成要件을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Joseph인 경우는 그가 自身の 行動의 結果가 죽음이라는 事實을 意識하고 있기도 하려니와 그의 行動은 自發的이며 意圖的이라 할 수 있고, Wilhelm인 경우는 그의 行爲가 自發的이며 意圖的이라고 까지는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自身은 자신이 이르게 되는 行動의 結果가 죽음이라는 事實을 알고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具體적으로 말하자면, Joseph의 경우는 그가 “draft board”로 달려가서

I hereby request to be taken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into the armed service.<sup>61)</sup>

라고 入隊志願 메모를 提出하는 行爲의 結果가 그 自身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選擇

59) *Encyclopaedia Britannica*, 1980 ed., s. v. “Suicide.”

60) Emile Durkheim, 「自殺論」, 林德燮 譯 (서울: 三省出版社, 1977), pp. 19-21.

61) Saul Bellow, *Dangling Man*, p. 153.

의 拋棄라는 사실을 認識하고 있기도 하며, "draft board"에 入隊志願 메모를 남기기 전에 自身の "alter-ego"인 "Spirit of Alternatives"와의 對話를 통하여 "It [the world internalized] want me to stop living this way." "And you think I should quit." "Dying?" "What's there to prepare for? You have merely to learn that you will one day be dead. I learned that long ago." "Look, there are moments when I feel it would be wisest to go to my draft board and ask to have my number called once."<sup>62)</sup>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Wilhelm인 경우에는, 그들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his weapons for suicide"가 되고 있으며, 그가 Wilhelm Adler에서 Tommy Wilhelm으로 改名한 것도 그의 "suicidal desire"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K. M. Opdahl이 말하고 있고<sup>63)</sup> 또 J. J. Clayton은 Wilhelm의 죽음을 "literal death by suicide"<sup>64)</sup>라고 表現하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Wilhelm은, 앞서 "象徴的 죽음"을 論하면서 이미 言及한 바 있듯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經濟的, 精神의 破局이라는 그의 죽음이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意識하고 있고, 또 Margaret나 Tamkin과의 관계가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masochistic하게 그들과의 關係를 계속 維持하여 마침내는 破局이라는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점점 죽음에 가까와 올 수록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 있음은 물론,

Come then, Sorrow!  
Sweetest Sorrow!  
Like an own babe I nurse thee on my breast!  
Come then, Sorrow!  
. . . . .  
I thought to leave thee,  
And deceive thee,  
But now of all the world I love thee best.<sup>65)</sup>

세상사람들이 파리처럼 다 죽어가고 있는데 自身 혼자만 살아볼려고 바둥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마지막 700弗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치 溺死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自制할 때도 "even though I never expect to see them

62) *Ibid.*, pp. 137-138.

63) Keith M. Opdahl, *The Novels of Saul Bellow*, p. 109.

64) John J. Clayton, *Saul Bellow: In Defense of of Ma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8), p. 125.

65) Saul Bellow, *Dangling Man*, pp. 96-97.

again”<sup>66)</sup>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靈柩 속의 낯모르는 屍體를 바라보며 흐느끼게 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拋棄하여 “Why, why, why — you you must protect me against the evil who wants my life. If you want it, then kill me. Take, take it, take it from me”<sup>67)</sup>라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짐으로써 生을 拋棄하려는 그의 意識的 態度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Joseph와 Wilhelm의 “象徴的 自殺”은, 물론 自殺에 관한 研究結果가 여러 分野에서 進行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죽음을 社會와 연결시킬 때 Durkheim의 自殺理論이 意味 있는 示唆를 던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Durkheim은 自殺을 社會學的 立場에서 크게 “利己的 自殺,” “利他的 自殺” 그리고 “아노미성(anomic)自殺”로 나누고 다시 “利己的—아노미性 自殺”과 “아노미—利他的 自殺” 그리고 “利己的—利他的 自殺”을 첨가하면서 “利己的 自殺”을 個人이 社會에 충분히 統合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自殺, 다시 말하여 個人의 自我가 社會의 自我보다 強力하여 社會的 自我를 犧牲시키면서 까지 主張되는 個人主義에 의한 自殺이라 부르고,<sup>68)</sup> “아노미性 自殺”을 人間의 慾求나 慾望을 制限하고 規律하는 能力을 社會가 喪失했을 때 즉 人間의 慾望이 規制를 받지 못하는 社會的 無規律 狀態인 아노미(anomic)가 高潮됨으로써 생겨나는 自殺이라 부르고 있는데,<sup>69)</sup> Joseph의 경우에는 그의 象徴的 죽음이 疎外속에서 그가 처한 社會의 價値基準을 拒否함으로써 社會에 統合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생겨나고 있으며, 또한 社會가 그를 受容한 만한 社會的 自我를 갖고 있지 못하여 Joseph의 自我가 社會의 自我보다 強力하게 作用하고 있기 때문에, 즉 Joseph는 社會自我에 대하여 自身の 自我를 拋棄하는 일이 없고 그의 自我는 結果적으로 社會의 自我에 의하여 抑壓, 挫折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어서 Durkheim이 말한 “利己的 自殺”과 매우 類似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現實 속에서 自身の 삶을 肯定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찾아낼 수 없었던 挫折당한 理想主義者 Joseph가 虛無와 絶望을 克服하기 위한 최후의 手段으로 生의 否定을 생각하고 無意味한 삶 的 現實을 破壞함으로써 挫折당한 삶 的 眞實을 補償하려 했을 것이라는 점이 Joseph의 “象徴的 죽음”의 原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다.

Wilhelm의 경우에도 그의 죽음은 Joseph와 마찬가지로 一面에서는 “利己的 自殺” 形態

66) *Ibid.*, p. 111.

67) *Ibid.*, p. 125.

68) Durkheim, 「自殺論」, pp. 163-73.

69) *Ibid.*, pp. 202-13. Anomie의 概念은 社會學分野에서 매우 다양하게 論議되고 있다. Durkheim은 이 anomie를 個人의 行爲을 規制하는 社會的 規範이 崩壞되었거나 行爲의 法則으로 더 이상 效果의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는 狀況이라고 보고 있다. 鄭文吉, 「疎外論研究」, (서울: 文學과 人性社, 1978), p. 208 참조.

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Wilhelm의 경우에는 Joseph와 달리 社會的 “anomie”를 經驗하고 있다는 점을 考慮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Wilhelm은 Joseph와 마찬가지로 社會的 自我에 대하여 自身의 自我를 主張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더불어 社會的으로 規制되지 않는 그의 感情들이 서로 調整되지 못하거나 그러한 感情들이 充足되어야 할 條件들과 適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런 葛藤을 經驗하고 있으며 점증하는 社會的 anomie가 그에게 失意와 幻滅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Wilhelm의 죽음은 Durkheim이 말한 “利己的 아노미性 自殺”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心理學的 觀點에서 Joseph와 Wilhelm의 죽음에 接近한다면 그들의 죽음 속에는 “defense mechanism”이 강하게 作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defense mechanism”으로서의 죽음의 形態 中의 하나는 “죽음에의 逃避”가 그것이다. 이러한 形態의 죽음은 現實의 狀況에서 慾求가 挫折되고, 더구나 慾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여하한 手段도, 逃避의 餘地도 剝奪될 경우에 생겨나는 최후의 逃避形式으로서의 죽음이다.<sup>70)</sup> “defense mechanism”으로서의 또 다른 形態의 죽음은 “自己否定”으로서의 죽음이다. 이러한 形態의 죽음은 慾求沮止의 狀態에서 外界에의 攻撃이 不可能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抑壓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外部로 向하여 내뿜을 攻撃性이 反對로 自己自身에게 向하여 發動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外部로 向해질 攻撃이 內部로 反轉되어 자기 자신에게 행해지는 內攻이 結果로서 일어나는 感情的 自己嫌惡, 自己卑下 등의 傾向인 自己否定의 極의 形態로서의 죽음이다.<sup>71)</sup> 물론 이 경우에도 窮極의 으로는 逃避의 形態가 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形態의 죽음은 바로 心理學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類型의 自殺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죽음에의 逃避로서의 自殺”이며 또 하나는 “自己攻撃으로서의 自殺”이다. Joseph의 경우 그의 “象徴的 죽음”은, 그의 疎外도 逃避機制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듯이, 逃避機制에 의한 “죽음에의 逃避로서의 自殺” 形態를 취하고 있다. 왜냐 하면 그에게 이 現實은 언제나 그의 理想的 自我의 實現이라는 그의 慾求를 挫折시키는 狀況이며, 그의 “象徴的 죽음”은 그러한 問題狀況 즉 現實로부터의 能動的 逃避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敷衍하자면 그는 그가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軍入隊를 통하여 즉 軍隊社會의 새로운 制約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社會에서 안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排除된, 말하자면 그의 慾求를 挫折시키고 있는 問題狀況에서의 逃避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Wilhelm의 경우에는 그의 心理의 根底에서 逃避機制가 역시 作用하고 있으나 그 形態는 “自己攻撃으로서의 自殺의 形態”에 가깝다. 왜냐 하면, Wilhelm은 그에게 하나의 慾求挫

70) 張秉琳, 「一般心理學」(서울: 博英社, 1975), p. 139.

71) *Ibid.*, p. 143.

72) *Ibid.*, p. 143.

折의 狀況이 되고 있고 그가 存在 不可能한 狀況 즉 資本主義 社會秩序에서의 逃避形式으로서 죽음의 形態를 취하고 있으나 그 形態는 自己自身이 살아 온 世界 즉 自己自身の 모든 것에 대한 否定形態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IV

筆者는 지금까지 먼저 Saul Bellow의 小説 (*Dangling Man*에서 *Herzog*에 이르기까지의 作品)에 나타나는 protagonist들의 죽음을 分析·檢討하여 그 特徵的 樣相 中の 하나인 “symbolic death”임을 論했으며, 둘째 이 “symbolic death”가 나타나고 있는 두 作品, *Dangling Man*과 *Seize the Day*를 分析하여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點을 밝혔으며, 셋째 이러한 “symbolic death”가 바로 自殺로 나타나고 있음을 Durkheim의 自殺論과 心理學 理論인 “defense mechanism” 理論을 援用하여 檢討했다. 위 세가지 論義事項을 要約하여 結末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Bellow는 *Dangling Man*에서 *Herzog*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問題를 全作品에 걸쳐 一貫性 있게 다루어 온 作家였으며, 그 죽음의 問題는 그가 다루어온 本質的이고 窮極的인 問題 中の 하나였다. 그가 이러한 죽음의 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첫째 特徵은 끊임 없이 人間의 죽음과 죽음의 問題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主動人物의 實際的 죽음은 단 한 作品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며, 둘째 特徵은 主動人物들을 죽음과 實際的으로 또는 象徴的으로 直面케 하여, 이 죽음과의 衝突의 結果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自覺, 즉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作品의 主題와 連結시켜 다루고 있다는 點이다. 셋째 特徵은 만약 主動人物들의 죽음을 다루게 될 경우에는 그들의 實際的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言表없는 죽음”으로, 다시 말하면 imagery와 象徴手法를 使用한 “象徴的 죽음”으로 그려가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므로 Bellow의 小説에 나타나는 protagonist들의 죽음은 “symbolic death”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죽음은 *Dangling Man*의 Joseph의 죽음과 *Seize the Day*의 Wilhelm의 죽음에서 나타나고 있다.

둘째, *Dangling Man*에서 Joseph의 죽음은 그가 自願入隊하는 行爲를 통하여 象徴的으로 나타난다. 自願入隊가 그의 죽음이 되고 있는 것은 그가 入隊前에 自身の “other-self”인 “Spirit of Alternatives”와의 對話를 통하여 죽음을 준비하고 있음과 入隊가 그의 죽음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며, 이와 함께 그는 죽음을 “the abolition of choice”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Bellow는 이러한 Joseph의 自願入隊行爲가 그의 죽음임을 보여

주기 위하여 一聯의 “death image”를 使用하고 있다.

*Seize the Day*에서 Wilhelm의 죽음은 그가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葬禮行列에 끼어들어 靈柩 속에 들어 있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屍體를 바라보며 복받치는 感情을 抑制치 못하고 끄칠 줄 모르는 그의 痛哭行爲를 통하여 象徴적으로 나타나며, Bellow는 “drowning man” image와 “hemorrhaged hippopotamus” image를 使用하여 Wilhelm이 죽음에 이르는 過程을 그가 窒息, 溺死하는 過程으로 提示하고 있다.

셋째, Joseph와 Wilhelm의 이러한 象徴적 죽음은 自殺의 形態로 나타난다. 이들의 죽음이 自殺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自殺이 “自發적이고 意圖적이며, 自身의 行爲의 結果가 죽음이라는 事實을 알고 行한 行爲에 의한 죽음”이라고 볼 때 Joseph와 Wilhelm의 象徴적 죽음은 이러한 自殺構成要件을 充足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社會學的 立場에서 Emile Durkheim의 理論에 의하면 Joseph의 죽음은 “利己的 自殺” 形態에 가깝고 Wilhelm의 죽음은 “利己의—아노미性 自殺” 形態에 가깝다. 心理學的인 面에서는 兩者가 다 逃避機制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Joseph인 경우에는 “죽음에의 逃避로서의 自殺” 形態이며 Wilhelm의 경우에는 自己否定의 極限形態로서 “自己攻撃으로서의 自殺”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Summary—

## Symbolic Death in Saul Bellow's Novels

Kyoung-zoo Yang

As K. M. Opdahl points out, "death" is one of Bellow's ultimate and essential problems that haunt him, and he has struggled to solve that problem in his novels. But up to recently, the studies of his novels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problems of man's existence in the modern industrial mass society, and even the problems of death have been considered as minor details. Therefore, to promote the right appreciation of Bellow's novel, the writer discusses the several problems of death in his novels and obtain the results as following :

1) The first characteristic of the way Bellow treats "death" in his novels lies in that even though he deals with man's death and its problem through all his novel from *Dangling Man* to *Herzog*, protagonist's actual death is not depicted.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at all the protagonists confront death either literally or symbolically and triumph over it psychically and spiritually, and that such death is treated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theme of his novels. The third characteristic is that in the case that Bellow shows the death of his protagonists, he describes symbolically their death by using literary imagery and symbol. Therefore, Bellow protagonist's death can be called "symbolic death" and such symbolic death is found in Joseph's in *Dangling Man* and Wilhelm's in *Seize the Day*.

2) Joseph's death in *Dangling Man* is expressed through the symbolic action, that is, his volunteering enlistment and through several images of death. Wilhelm's death in *Seize the Day* is also represented through the symbolic action, namely his wailing before the corpse who Wilhelm doesn't know he is and through the images "drowning man" and "hemorrhaged hippopotamus."

3) Joseph and Wilhelm's "symbolic death" is a kind of suicide. Suicide can be called the death "by intentional and voluntary actions whose result, a doer realize, is his death," and their deaths meet such requirements for suicide. In sociology,



according to Durkheim's theory of suicide, Joseph's death can be explain as "egoistic suicide" and Wilhelm's "egoistic-anomic suicide." In psychology, both Joseph's and Wilhelm's suicide are committed under the mental process, "escape mechanism." Joseph's suicide is similiar to "suicide as escape to death'" and Wilhelm's to "suicide as self-attack, that is a form of extreme self-negation."